

발표를 통하여 대학생들의 영어지식을 공고히 하기 위한 교수방법

김 광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학들에서는 원리교수, 중점교수를 과학리론적으로 깊이있게 하여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학생들이 자체학습으로 지식의 폭을 넓히는것과 함께 자립적이고 창조적인 학습방법, 연구방법을 체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3권 399페이지)

현시기 외국어교육에서는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밀접히 결합시켜 학생들이 강의에서 배운 지식을 현실에서 능숙하게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나선다.

이 글에서는 발표를 통하여 학생들의 영어지식을 공고히 하기 위한 몇가지 교수방법에 대하여 론하려고 한다.

대학생들이 발표를 통하여 배운 영어지식을 더욱 공고히 다지게 하자면 무엇보다먼저 학생들의 복습지도를 잘해야 한다.

복습은 이미 배운 지식을 다시 익히는 학습과정으로서 배운 내용을 완전히 자기의것으로 소화하고 지식의 폭을 넓히며 실천에 써먹을수 있게 공고히 하는 반복학습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어휘와 문법을 비롯한 많은 영어지식은 제한된 강의시간에 완전히 소화할수 없으며 또 습득하였다고 하여도 복습을 하지 않으면 인차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강의시간에 배운 영어단어 및 표현구들을 암기시키는 한편 그것들을 가지고 글짓기나 대화만들기와 같은 과제를 주어 구체적인 정황에서 복습하게 하면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공고히 할수 있으며 그 과정에 창조력과 논리적인 사고력도 키울수 있다.

발표를 위한 복습과제를 줄 때에는 복습과정이 학생들이 발표회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지향시켜야 한다.

발표를 위한 복습지도에서는 우선 제시된 과제내용을 가지고 발표할수 있도록 주제를 잘 선정해주어야 한다.

실례로 교재 《영어 4》에서 취급하는 《Unit 7. Technology》를 볼수 있다.

이 과에서 대학생들은 컴퓨터에 대하여 배우게 된다. 이때 교수자가 컴퓨터란 무엇이며 그의 구조와 기능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발표하라고 하면 학생들은 자기들이 알고있는 일반상식에 기초하여 큰 품을 들이지 않고 발표준비를 대충 할수 있다.

그러나 발표주제를 명백히 선정해주고 컴퓨터와 관련된 어휘표현들을 제시해준다면 학생들은 선정된 주제와 어휘표현, 배운 영어문법을 활용하여 발표준비를 신심을 가지고 내용있게 할수 있다.

이 과에 대한 발표준비를 위하여 다음의 주제들과 어휘표현들을 제시할수 있다.

례: — 주제선정

◦ 《Computer Viruses and the Writers》

- 《The Computer Games Bad for Children》
- 《The less sociable Internet》
- 어휘표현들
 - a hand-held computer
 - a GPS/satnav
 - ADSL (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loop])
 - webcam
 - click on a website address

발표를 위한 복습지도에서는 또한 학생들이 발표내용준비를 실속있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표내용준비에서 중요한것은 학생들이 발표내용의 형식을 잘 갖추도록 하는것이다. 여기에서는 인사말(자기 소개말), 내용서술과 맺는말 등의 형식을 잘 갖추어야 한다.

례: — 인사말형식

- Dear Comrades(students or classmates). [친애하는 동지들(대학생동무들, 학급동무들).]
- Comrades and friends. (동지들과 벗들.)
- We are immensely happy to (do) ... (우리들은 ...을 하게 되어 매우 행복합니다.)
- We are delighted to see you again. (당신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 내용서술형식

-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hat ... (…은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 I should like to say a few words about ... (저는 …에 대하여 몇마디 하려고 합니다.)
- I'd like to take the floor to tell about ... (저는 …에 대하여 연설하겠습니다.)

— 맺는말형식

- In conclusion, I should like to ... (저는 끝으로 …하고싶습니다.)
- I wish to conclude my talking with praying for ... (저는 이야기를 마치면서 …가 …를 바랍니다.)
- Allow me to conclude by once more thanking you.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Thanks a lot. / Thank you very much.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표를 위한 복습지도에서는 또한 학생들이 발표내용을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만들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학생들이 발표내용을 문법적으로 잘 맞추지 못하면 듣는 학생들에게 인차 이해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보여주려는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수 없다.

학생들이 발표내용을 문법적으로 정확히 만드는 습관을 불이지 못하면 발표와 토론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영어학습에서 응당한 성과를 거둘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교수자는 학생들이 발표회를 준비할 때에는 발표내용과 그 형식, 문법적정

확성과 같은 측면들에 언제나 큰 관심을 돌려야 한다.

발표를 위한 복습지도에서는 또한 여러가지 대화기능표현들인 다시 물어보기와 다시 말하기, 다른 말로 말해주기, 실례주기, 생각할 시간주기, 화제바꾸기 등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적극 활용하도록 학생들을 제발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비공식적인 형태와 공식적인 형태의 표현들을 갈라놓음으로써 학생들의 듣기능력을 높여주어야 한다.

예: - Asking something again

- Pardon ?
- I'm sorry I didn't catch ...
- What was that (again)?
- I'm sorry, would you mind repeating (please)?

} informal

- Checking that you have understood

- Does that mean ...?
- So am I right in saying ...?
- If I understand/I've understood right ...
- You mean ...?
- Would I be right in supposing ...?
- Would I be correct in saying ...?
- If I understand you/that etc. correctly, ...

} informal

} formal

- Saying something in another way

- What I mean is...
- What I'm trying to say is ...
- What I'm getting at / driving at is ...
- All I'm trying to say is, ...
- Perhaps I should make that clearer by saying ...
- If I can rephrase that/rephrase what I've just said ...
- Perhaps it would be more accurate to say/if I said ...

} informal

} informal

} formal

- Giving yourself time to think

- ... what is/are he/she/they called, ...?
- ... just let me get this right, ...
- ... , hang on a sec, ...
- ... , it's on the tip of my tongue ...
- May I think about that for a moment ?
- (Now) How can I /should I put this/it ...?
- (Now) How can I best say this/it ...?

} informal

} formal

발표를 위한 복습지도에서는 또한 학생들이 토론과 논쟁의 방법으로 말하기련습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원은 발표와 토론을 위한 학습조구성을 잘해주어야 한다.

학습조를 잘 구성해주는것은 과외시간에 학생들이 외국어로 말하는 기풍을 세우는데

서 아주 중요하다.

교원은 학습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학습조의 규모와 나이상특성, 남녀별특성, 실력 등을 고려하여 모든것이 학생들의 외국어발표토론에 좋은 효과를 주도록 해주어야 한다.

실례로 학습조구성경험을 보면 학생들의 말하기련습을 계발시키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실력상차이를 고려하여 조를 구성하는것이 아주 긍정적이였다.

대학생들이 발표를 통하여 배운 지식을 더욱 공고히 다지게 하자면 다음으로 여러가지 직관연시수단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직관물은 학생들이 발표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할뿐아니라 그에 기초하여 실감있게 발표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최근 당의 교육중시사상에 의하여 모든 대학들의 교실들이 현대화, 다기능화된 교실로 꾸려져 교원들이 다매체직관물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직관연시수단들을 리용하여 교수밀도를 높이고 교수를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고있다.

그러므로 외국어발표에서도 학생들이 직관연시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전자직관물을 자기가 발표할 주제의 내용에 맞게 잘 만들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발표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직관물제작에서는 학생들이 발표하려는 제목과 차례, 기본요점들만 반영하여 전자직관물을 보면서 자기 말로 발표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대학생들이 발표를 통하여 배운 영어지식을 더욱 공고히 다지게 하자면 다음으로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과정을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

우선 교수자는 발표자가 정확히 발표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학생들이 발표준비를 착실하게 준비한 조건에서 발표를 신심을 가지고 류창하게,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는것이다.

발표자가 간혹 발음이 틀리고 문법적으로 정확치 못하다고 하여 그리고 정확한 단어선택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발표하는 도중에 시정시켜주려고 하면 학생은 신심을 잃고 준비한것도 제대로 발표하지 못할수 있다.

그러므로 교원은 학생들에게 안정감과 신심을 주는것이 필요하다.

실례로 학생들이 발표를 하는 과정에 정확한 단어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교원은 결함을 지적하는것보다 학생스스로가 결함을 찾고 시정할수 있게 유도해주어야 한다.

례 학생: The first virus to connect from computer to computer was called Brain in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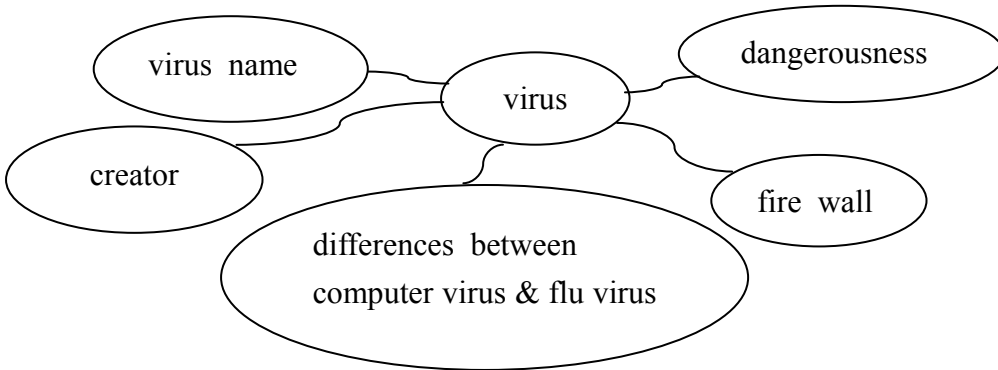
교원: You said the first virus to connect, well, to travel from computer to computer...

우에서 보는것처럼 교원은 단어 connect와 travel을 동시에 문장속에서 표현함으로써 학생이 자기가 잘못 선택한 단어를 찾아 시정하도록 하게 할수 있다.

또한 발표자와 학생들사이의 교감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다시말하여 발표자의 측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말을 귀담아듣고있으며 발표에서 결함이 없어야겠다는 긴장감을, 듣는 사람의 측면에서는 자기가 준비한 발표내용과의 차이점을 찾고 론쟁을 하게 할수 있다.

이를 위하여 발표자를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그림이나 도해를 리용하여 발표자의 발언내용과 제기할 질문들을 학습장에 요점적으로 써놓도록 한다.

실례로 발표자가 《virus》(비루스)에 대하여 발표한다면 다음과 같은 도해를 그릴수 있다.



또 다른 실례로서 학생들에게 GNL일람표를 만들게 할수 있다. 여기에서 《G》는 《Given information》로서 이미 자기가 알고있는 내용을 의미하며 《N》는 《New information》로서 알고싶었던 새로운 내용을, 《L》은 《learnt》로서 새롭게 배운 내용을 의미한다.

G	N	L

이렇게 자체의 그림도해나 표를 만드는 과정에 학생들은 강의에서 배운 내용과 자체로 습득한 내용들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을 구분하는 학습방법을 체득하게 되며 듣기능력도 개선할수 있다.

발표자와 발표내용을 듣는 학생들사이의 교감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여러가지 교수수법들이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학생들을 중심에 놓고 그들의 창조적사고와 적극성을 계발시키며 연습활동의 주체가 학생들자신이 되도록 하는것이다.

또한 발표에 대한 평가방법을 잘 적용하는것이다.

교원은 심사자의 립장에서 학생들자신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어휘표현리용, 문법적오유, 발음, 몸가짐, 직관물리용 등 여러 측면에서 발표자의 발표수준에 대하여 평가하게 하여 모두가 발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발표를 통하여 배운 지식을 더욱 공고히 다지며 대학생들의 말하기능력과 듣기능력을 높일수 있는 교수방법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학생들을 유능한 혁명인재로 훌륭히 키워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